



제
일
호

레트로갬성신문

발간일: 단기 4353년 서기 2020년 3월 1일



복고감성으로 답하게 충만한 탑글러너들이 85년 된 서대문 여관방에서 만든 판도최초 '레트로스페셜' 신문



조선의 손글씨장인들의 뉴트로갬성, 붓물 터졌소!

서른다섯의 손글씨장인들이 뉴트로 캘리라는 우물에 빠져서 53개의 작품을 그려냈노라. 전세게 어디에도 없는 뉴트로캘리아트전, 떠난의 전아들이 제일로 먼저 내달려 작품을 만천하에 공개한다. 때론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해도 이들의 충만한 뉴트로 갬성은 누군들 막을 수 있었으랴. 잠만 쉬었다가도 좋을 이 높은 여관방에서 아름답고 힐한 뉴트로에너지가 마구 뿜어져나올 듯 하지 않은가? 자, 와보시라. 3월의 파스 한 봄기운 가득 뿜었다.

뉴트로의 신인류, 캘리그래퍼들이 나가신다. 길을 열고 문을 열었으니 수도서울의 모던백이, 차도녀들이여 서여 모이시라. 전시는 3월 2일부터 28일까지 쉽없이 계속 된다.

백작
CALLI.

손글씨패의 수장은 '백작'이라 하고, 그의 휘하에 36명의 날고뛰는 손글씨쟁이들 있다하오.

이미 시작된 퍼세 '뉴트로', 세퍼와 세퍼를 연결하다!

'뉴트로 Newtro', 새로움 New과 복고 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 Retro를 새롭게 New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다소 생소하고 낯선 주제지만 이미 작년에 이어 '2019년 메가 트렌드 Megatrends'로 자리를 잡아 대중 매체와 SNS를 통해 삼삼할게 만나 볼 수 있다.

- 어제와 만난 오늘 -
옛것은 별의 꿈을 위한 재료다

이러한 뉴트로 문화는 '세퍼와 세퍼와의 만남'을 성사시킨, 어쩌면 양극화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화해의 문화 콘텐츠'가 아닐까 한다. 이렇게 요즘 젊은 세퍼들이 부모 세퍼의 복고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며 단순히 과거를 소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전 세퍼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나아가 세퍼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이자 치방전이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를 이기면 그 왕관은 우리 것!
판도에 닥친 중국발 피질
코로나의 역습을 이겨내자.

금반효무「약대빈」된명발신



2019년 12월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난민국에 창궐한지 벌써 두 달에 판도 백성들의 불안이 가시질 않는 가운데 대구벌에서 '신천지' 하하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확산일로에 빠진 작금의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자년 봄바람을 타고 우리 문화예술인 모두 한껏 재기와 기량을 뽐내고 시민과 어우러질 많은 행사와 전시회를 내놓으려 했으나 사람이 모인다는 곳이면 무조건적으로 취소와 보류가 이어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고.

그러나 우리 백성은 연병과 천연두 등 온갖 질병을 이겨냈고 또 사스, 메르스도 이겨내고 돼지열병과 조류독감은 그 자취를 감추게 한바 있지 않소?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이여 창작의 열을 거두지 말고, 상상의 나래를 잡지 마소. 문화와 예술은 본디 고통의 만열 속에서 움트는 것이 아니소.

考
伯

庚子年 1月 서대문여관,
레트로문화공간으로

재단생

전시기법 / 참여작가문의
070-8100-9037 www.playretro.kr

백작캘리그래피 작가그룹초대전

이천이십년

~ 春三月 ~

Playretro@서대문여관

뉴우복고전

주최
BECKJAK

캘리갬성전

주관
miru Hayonwide
문화예술지원그룹 윤민재

백작캘리그라피그룹의 뉴트로 '뽀럭' 대방출!

가히 란도 최고의 젊은 캘리그라피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백작 강대연 작가와 그를 따르는 캘리작가들과 문하생들은 이미 3년 전부터 뉴트로가 시대를 역행하는 주된 흐름이 될 것을 감지하고 열과 성을 다해 실력을 연마하고 기량을 닦았다. 이번 '뉴트로 캘리캘링전'은 '어제와 만난 오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너의 위대함을 보여줘 156X133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을 꿈꾸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 힘들지만 이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이 작품을 바칩니다. 꿈꾸는 자들이여. 보여주세요. 당신의 위대함을. 유년시절에 살았던 한옥집은 콘크리트 불럭을 쌓아 만든 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노출 인테리어가 유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고적이면서도 유니크한 인테리어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콘크리트 불럭에 페인트로 영문 캘리그라피를 작성하고 시트지를 붙여 빈 공간에 목탄으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백작 캘리그라피 대표, (사)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소속작가, tvN 드라마<백일의남궁님>, OCN 드라마<손 the guest> 타이틀, 삼성 노트북 PEN S, 맥심화이트골드, 키자니아 윤종신, SBS 드라마<사외한미> 이중석 손 대역 모델, 소주<좋은데이> 로고, tvN 7주년 브랜드CF, 가나초콜렛, 핫초코미떼 CF, 구현<광화문에서>, 국내 최초 펜으로 배우는 캘리그라피 클래스 개발



썸데이서울 50X70

1970-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선데이서울'과 2010년대 탄생한 단어 '썸'의 만남. 뉴트로의 감성으로 선데이서울을 재구성 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나 80X140

2019년 오늘의 나는 1999년 어제의 나와 만났습니다. 꿈을 위해 썸없이 살았던 20년 전 "나"는 지금의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시간이 멈춥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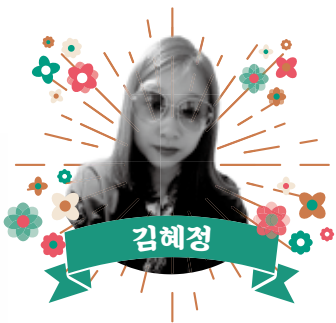
시대의 키워드① |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 1937

일본제국의 온갖 판도 배와 아시아의 문명도시에는 어느 곳이든 다 있는 판스홀이 유독 우리 조선에만, 우리 서울에만 허락되지 않는다 함은 심히 통탄할 일로 ... 하루속히 서울에 판스홀을 허락하시어 ... 유쾌한 기분을 60만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소시."(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중)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인 1937년 1월 레코드회사 문예부장 이서구, 영화여우 오도실, 동양극장 여우 최선화, 조선권번 기생 오은희 등 남녀 8명은 조선 총독부에 '판스홀'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당시 발행되던 잡지 '삼천리'에 '서울에 판스홀을 허(許)하라'라는 제목으로 실은 공개서한이었다.



세상의 시간은 오늘도 앞으로 버딘지만
어제의 기억은 둥근 세상을 맴돈다

좁다란 마루에 앉아 양은 쟁반 위의 아침 식사가 생각나며 어느날 바라본 시계의 시침은 12개의 '워너미'의 기억을 소환한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들뜬 물입은 비틀즈의 추상을 재정돈하며 목은 달력의 날장을 넘기고 넘겨도 영원의 시간을 아우르는 '알파와 오에가'의 긴 시간을 부여잡지는 못할거야.



쟁반 64X98

옛날 은쟁반에 지금의 음식과 영어를 한글 캘리그라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아침밥을 잘 안먹는 요즘 간단하게라도 아침밥을 먹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45X45

늘 똑같은 자리를 들고 있는 시계이지만, 늘 다른 시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이 모든 시간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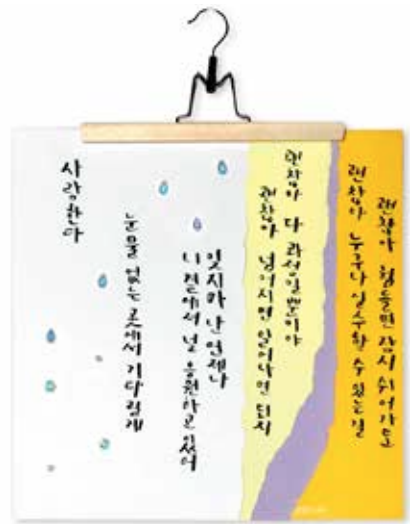
회상



BTS 100X80



제2의 비틀즈로 불리는 bts. 비틀즈가 젊은이에게 자유를 노래했다면 bts는 제2의 비틀즈가 아닌 방탄소년단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외친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하고 느껴도 볼 버리지 않는 마.



알파와 오에가 70X160



어떤 오늘 100X50

하루에 한 장씩 넘기던 일력으로 캘리그라피를 표현해보았습니다. 그 어떤 하루였을지라도 소중한 나의 '오늘'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시대의 키워드 ③ | '부인, 뭘 그리 주저하시오' (小説 자유부인) 1956

전쟁 후의 폐허교수 부인의 불륜과 가정 귀환을 통한 퇴폐한 사회 풍조와 주변 인물들을 통한 미망인의 재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미망인에 대한 묘사와 불륜 관련 문제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어려운 전후 상황에서도 4만부가 단시간에 팔려나갔다.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고, 나름 선정적인 주제로 사회에 화제가 되었으며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였던 황산익(훗날의 법무부 장관)은 이 작품을 일컬어 중공군 2개 사단(50만 명)에 필적할 만큼 사회에 위험한 요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참고로 정미석은 이에 대해 "폭력단 이상으로 무서운 무지에서 오는 폭언"이라고 탄핵한 바 있다.



라디오에서 음악을 들었어.
그녀에게 편지를 썼어 내마음의 액자에,
그때와 나의 사랑의 이야기(레포트)를 담았지.

치직치직~ 동글동글 돌아가는 엘피판 위를 들고 도는 바늘의 마찰과 텅김소리 마저 정겨운 오늘, 설레이는 사랑의 시작부터 아픈 이별의 순간까지 함께 했던 향수의 음악들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며 부쳤던 그때의 편지들이여, 내 사랑의 액자들이여. 수많은 추억의 주인공들은 오늘의 서던가에서 그 시절 그때의 사랑 이야기를 되뇌이고 있을까?



오늘 60 x 70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은 딱 한 서재가 되어서 빛나는 추억이 되겠지요. 어제와 만난 오늘의 나에게 후회하지 않을 하루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캘리그라피로 표현했습니다.



뮤직뱅크 - 그때 그 노래 60 x 70

옛 추억 속 그때 그 노래들을 LP판 위에 표현해 보았습니다. LP와 함께하는 뉴트로캘린더가 듬뿍 담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Love yourself 60 x 70

Love yourself, Love myself. 빈티지 감성의 배경에 최신 트렌드를 더하다. 요즘 가장 핫한 그룹 BTS 노래 중 하나인 'Love Yourself'를 읽고, 나를 사랑하자는 삶의 트렌드를 담은 가사를 적어보았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당신 60 x 70

누구에게나 마음을 소롯이 전달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정한 손편지가 당연했던 그 때, 오늘에 다시 그리운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당신.



That's who I am 42x60

1992년 레포트는 모두 손글씨로 썼다. 지금은 낯설지만 버겐 익숙한 서재. 서재의 글씨로 만나는 지금의 나~ 뉴트로, 그게 바로 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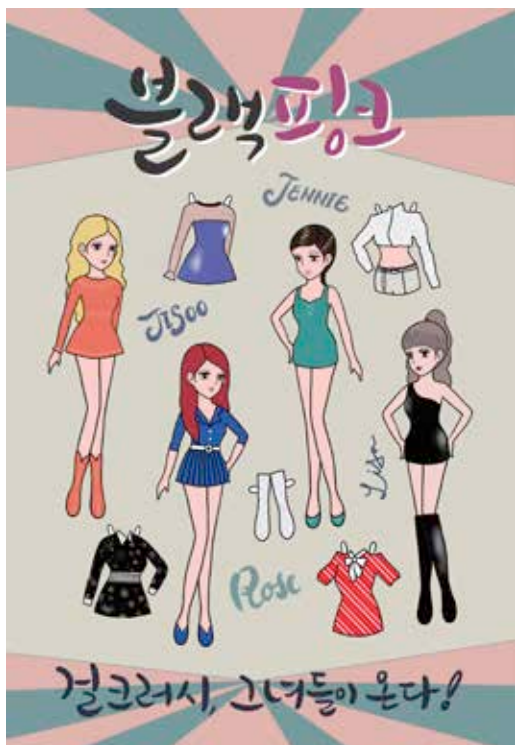


시대의 키워드 ④ | '신중현과 <애드포> 1964

<빛속의 여인>은 그 유명한 <락의 패부 신중현>의 곡이다. 이 노래를 많은 가수들이 앞다투어 불렀다. 많은 이들이 김민모의 곡을 원곡으로 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애드포-리드보컬 서정길>이란 락그룹에 의해서 1964년 발표된 곡이다. 50년이 넘는 노래치곤 전혀 촌스럽지 않은, 아니 오히려 요즘 감각에 더욱 잘 어울리는 훌륭한 음악성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중현은 1960년 스물 둘 약관의 나이에 미군 정보부 소속 <시빌리언클럽>에서 최초로 기타 독주공연을 가져 미군들의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에 자신감을 얻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락밴드 결성을 감행했으니 이것이 한국 최초의 락그룹 애드포(Add4)였던 것이었다.

어제의 추억은 오늘의 아쉬움과 결국, 항상불이 돼.
종이판에서 오래된 세쁜 옷으로 난 공주가 되어서.

세쁜 신랑신부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른다구. 신데렐라 바라기 소녀들에게 늘쌍 방해공작을 펼치는 담배가게 아저씨에겐 물총세례를 퍼부어줬지. 말괄량이 막내딸 치마, 바지 길는다고 한나길 미상을 들리셨던 우리 엄마! 못난이 우리가족, 사랑하는 울엄마! 수고했어요. 이제껏 그 한마디를 못하고 살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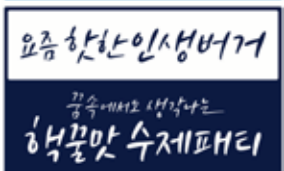
블랙핑크 42X60

핑크를 거부하는 당당한 그녀들 <블랙핑크>를 레트로 감성인 종이인형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꿈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축결혼 67X71

깊은 어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사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까?



버거 67X71

색깔만 봐도 아~ 하게 되는 추억의 담배 광고판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넣어 햄버거 광고 문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옛날 광고 간판의 색상을 떠올리며 원형 간판까지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피-쓰 피-스 (Piece, Peace) 70X100

하꽃길, 집 앞 음란 가게에 들러 좋아하는 노래들의 'Piece' 악보를 사서 모으던 시절. 단돈 500원에 마음의 평화 'Peace'를 얻었던 소중한 기억을 조금스레 꺼내어 지금의 나를 위해 어루만져 봅니다.



쑈-잉 머신 50X50



모양도, 용도도 조금 달라졌지만, 그 모습은 익숙한 재봉틀에 대한 기억을 깨웁니다. 예전보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그때 그 재봉틀 다리는 여전히 식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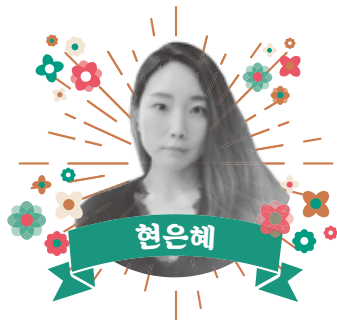
시대의 키워드 ⑤ | 윤복희 '미니스커트 입고 귀국'은 오보 | 1970

1952년 뮤지컬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하여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였고, 1963년 필리핀과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 영국, 독일(서독), 스페인, 스웨덴, 미국으로 차례차례 건너가 1964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 베이거스에서 1976년까지 활동하였다. 1967년 <웃는 얼굴 다정해도>라는 곡들의 7곡으로 판을 만들었고 또한 대한민국에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1967년 1월 6일 미국에서 잠시 귀국하였을 때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버려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1996년 신세계의 TV 광고로 인해 생긴 오해이다. 이 미니스커트는 노라 노가 디자인했다고 한다.



“감혀있는 성장의 벽을 뚫어라”. 우리들의 원더풀 사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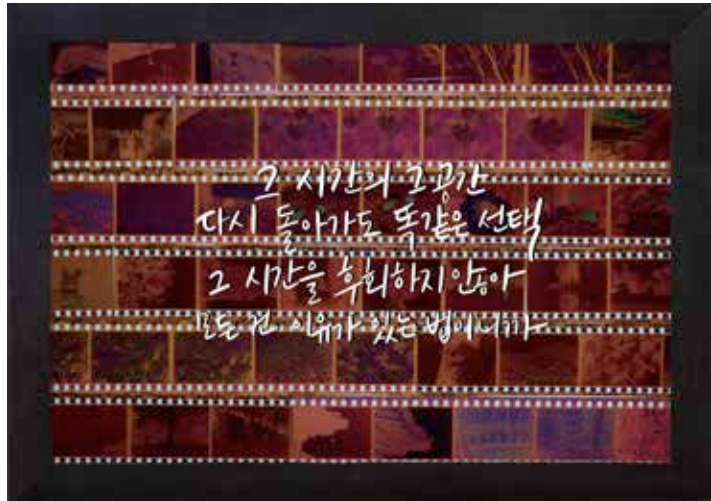
특 초는 사이타처럼, 거친 흑백필름보다 울킬러 사진 속 활달한 풍경이 더 어울리는 1980세대의 하이틴! 압축한 시대의 한 면에서 곳곳한 우리의 젊음은 자유와 낭만을 따랐지. 수십년 세월 지나 라이브카페에서 '바위집'과 '바람바람바람'을 들으면 애뜻했던 내 사춘기의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게 돼.



현은혜

감혀있는 시간 52X40

과거의 추억이 담긴 필름, 같은 공간 안에 담긴 필름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기억이라도 현재에 오면 추억이 되듯 모든 일을 잘 견뎌낼 바랍니다.



홍경희

사춘기 22X35

엄마와 딸 세대와의 만남. 사춘기의 곳곳한 감성을 추억과 노래로 이야기 나누며, 캘리그라피와 일러스트로 함께 담았습니다.



사진관 70X130



강신애

열정소다[열정쏘다] 59.4X42



너의 열정을 쏟아라! 날씨 맞인지 기분 맞인지 열정이 사라지고 나른해지는 요즘, 데이스타 자매종인 “열정쏘다” 마시면서 열정을 충전해야겠어요!! :-]



박미나

러브마이셀프 42X59.4

7080 라이브 카페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기타 반주에 맞춰 흘러나온다면 어떨까? 7080 감성에 현재 방탄소년단의 조합으로 뉴트로 감성을 느껴 보고자 표현했습니다.



황범섭

잠시 뒤를 돌아보며 잊었던 기억을 필름을 통해 되살려 보세요. 필름은 아무리 낡고 찢어질지라도 당신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또한 옛 사진관에서 보던 모습을 한번 느껴보세요.



시대의 키워드 ⑥ | 전국 중교교 교복 자율화 | 1983

1980년대의 가장 큰 변화는 영 패션의 등장이다. 1983년 문교부의 교복 자율화 실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옷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주니어복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를 얻으며 캐주얼 웨어의 리약적 발전이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등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의 개최로 스포츠 웨어가 패션의 큰 흐름으로 등장했다. 이런 이유로 1980년대에는 캐주얼 웨어와 스포츠 웨어를 일상복으로 입는 경우가 보편화 됐다. 또 이 시기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이 유행했다.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이란 간단히 말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함께 입는 것을 말한다. 패드로 어깨를 강조한 정장스타일이 그 대표적인 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타일을 가리켜 ‘뽕을 넣는다’거나 어깨와 팔다리에 ‘뽕감을 넣는다’고 표현했다.

동네 골목에서 펼친 소소한 장난과
소꿉놀이가 더 썩나고 행복 했더니까!

동네 골목과 놀이터에 차~압말로 애들이 가득했는데 말야. 한 손엔 달달구리 콜라맛 막대사탕들고 다른 한손
으로 캡슐볼 거집어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배달했던 나였어. 여고생시절엔 삼촌의 타자기를 뺏어서 타닥타
닥 습작시의 글자 하나하나를 쳐왔구 지금은 마치 삼십여년 전 동네 어귀의 간판과 표어딱지가 붙어있는 서울
의 곳곳을 보게 돼. 어제의 순간이든 오늘의 찰나이든, 버 삶을 이어갈 수록 모든 게 다 소중한데. 아마 너도 그
렇겠지?



캡슐 뽑기 40X40X100

달달구리 콜라 맛 막대사탕 하나 물고, 두근두근 반짝이는 기대하고, 도
로로록 돌렀던 학교 앞 문방구의 장난감 캡슐뽑기! 지금 당신은 어디서,
어떤 순간에 감정이 일어오나요? 영화로 만나는 감동의 순간들이 여기 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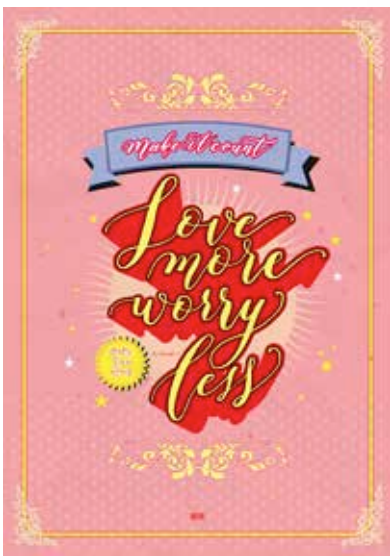


new writing typing 31X41



순간을 소중히 42X59.7

순간순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나 미래
의 걱정은 조금 덜어내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
습니다.



열 일곱살, 시를 좋아하던 감성소녀는 타자기로 시를 베껴 적었고 지
금의 나는 아이패드로 나의 시를 씁니다.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다'
오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간판 35X45, 30X30, 30X30

어릴 적 보았던 복고풍의 간판을 레트로한 감성을 담아 오늘의 간판으로 새롭게 재현해
보았습니다. 여길 보라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 간판, 여기를 봐주세요.



'오늘'과 만난 표어 35X45, 30X30, 30X30

그때 그 시절, 벽에 붙여져 있던 표어 포스터를 캘
리그래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닌
일상의 이야기를 공감하시나요?

시태지의 키워드 ⑦ | '난 알아요' 시태지와 아이들 | 1992

시태지와 아이들 1집의 타이틀 곡이자,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의 판도를 뒤집은 역사적인 히트곡.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의 역사는 <난 알아요>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있는 곡은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손에 꼽는다. 이게 어느정도냐면 90년대(난 알아요)-00년대
(Tell Me)-10년대(강남스타일)일 정도다. 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로 활동하면서 입었던 패셔
스타일은 전국적인 유행이 되었으며,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여주는 장기자랑은 무조건 난 알아요
가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다. 현대의 음악인들은 대한민국 가요사를 바꾼 인물로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선구자 신중현과 함께 '시태지와 아이들'을 세기의 문화혁명가로 꼽는다.



세월이 지나고 변치 않는 추억의 히어로는 그대!
푸른바다 저멀리, 우주를 향해 정의로 뭉친 주먹(?)을 날려봐!

2020년 3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원가를 계속 보고 있어. 게임이야, 뉴스야, 유튜브야, 인스타그램이야. 그런데 옛날엔 어땠냐구. 딱지에, 인형에 공책 낙서에서 만화 속 주인공들을 만났잖아? VHS 비디오테이프를 틀면 다시보고 빨리 안보고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어. 그대 크든 작든 위대하든 초조하든 어제는 오늘에 다시 말할 빛이야. 푸른바다, 밤하늘에 다시 그려봐! 너의 옛추억을...



추억의 왕딱지 100X130

어릴 적 딱지놀이를 생각하며 왕딱지에 캘리를 입혀 캘민적으로 작품을 표현해봤습니다.



Dear 150X150

매일을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대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어제는 오늘의 빛 카세트테이프 가사집 32X10



조명 27X30, 30X50, 27X30



지나간 어제의 날들에 오늘의 감성을 담아 쓴다. 이미 지나 버린 것이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습작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밑거름이고 빛이 됩니다. 추억의 카세트테이프와 조명으로 어제와 오늘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공작지는 세대가 변하여도 똑같은 가 봅니다. 1984년에도 2019년에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빛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대라고 서로 고백합니다. 다른 시대이지만 같은 감성을 하나의 카세트테이프 안에 담아 감상하며 사랑의 감정을 공감하길 기 바랍니다.



1990 비디오클럽 36X81

어린 시절 늘 돌려보던 비디오, 현재 즐겨보는 웹툰과 영화로 새로워진다. 비디오 명가 '1990 비디오 클럽'에서 함께 즐겨보세요. 예전, 만화영화의 테이프 시리즈, 12세 관람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를 요즘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뉴트로 감성에 빠져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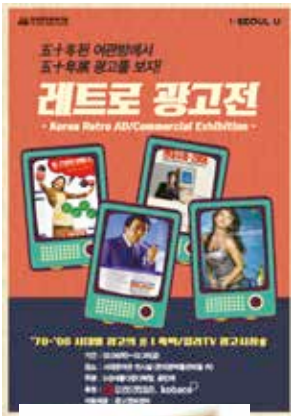
시대의 키워드 ⑧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타카드 광고 | 2001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 못한 또다른 '중요의 시대'를 열었다. 더군다나 2000년대, 인터넷과 금융영역에서 우리의 일탈 욕망을 자극하는 수많은 광고물들이 쏟아지고 기호소리도 크게 들면서 도시의 일상은 다양한 여가와 취미, 레저를 즐기는 군상들로 채워졌다. 주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이제 일보다 휴식, 그리고 휴식 이상의 여유와 낭만으로 들뜨기 시작했다. 카드, 금융사의 광고가 서비스 안내, 강조형 광고형 광고에서 편안하고 여유있는 라이프스타일 광고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제1회 레트로광고전

오십년도 더된 여관방에서 100년의 광고를 만나다!

전시기간 : 2020.02.07 ~ 28 장소 : 서머문여관1층 전시실



유한양행의 네오톤(1954)



고려화학의 조미료 '미정' (1959)

구한말 '고백'에서 일제강점기의 '광고'까지 100년의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광고의 역사가 아니겠소. 1886년 한성주보에 실린, 해외의 신박한 물건을 나열한 국내 최초의 광고를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가져온 조미료광고, 조선사람의 광고에 필요하다며 열린 선전을 펼친 유한양행의 강장제 '네오톤' 광고, 활명수 광고 같은 '강건형 상품광고'가 줄을 이었소. 조선의 백성은 바야흐로 소비자가라 불렸고, 소비자는 시장과 상점에서광고에 나온 '상품'을 '구매' 하기 시작한 거외다.

1945년 이후 생활소비재 광고시대 개막 해방 후, 6.25를 거치며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제일의 매체인 신문지상에서 비누, 치약, 샴푸, 쏘마드, 조미료, 약제품, 신발, 농기구 광고를 만나게 된다. 오늘날 너로라하는 기업들은 거개가 1950년대 초반부터 소비재산업으로 시작해, 산업발전기를 지나 수출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현대 기업들의 시작점을 우리는 광고를 통해 만나지 않을 수 없소.



고무신,운동화/국제화학(1959)



태평양화학의 포마드(1957)

2020년의 뉴트로 : 흘러간 과거의 모습을 다시 끌어내고 그것을 재가공하고 새로이 디자인한다

New Retro. Spect. Design ▶ Generation Sympathy

세태를 아우르는, 뉴트로 디자인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고
세태간의 공감을 위한 디자인 무브먼트!



오래된 찬장을 정리하다 각종 우유, 쥬스 브랜드의 유리컵을 발견하고 흠칫 놀

란 적이 있다. "언젠가 빛을 발할지도 모른다"는 맥시멀리스트들의 주장을 증명하듯, 레트로 감성이 흠칫 묻어나는 유리컵과 유리병은 어느새 신선한 디자인이 되어 사람들의 영감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 브랜드의 패키지디자인 역시 시류를 따르면서, '과거의 것'은 다소 촌스럽게 취급되고는 한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촌스러운 디자인'은 '레트로(=복고)'가 되어 그 세태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세태에게 신선한 디자인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트렌드는 비단 과거의 '컵'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뉴트로디자인이 패티와 뷰티업계를 비롯하여 인테리어와 문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발의 경우, 과거 유행했던 투박한 디자인에 트렌드를 가미한 '슈크리 슈즈'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뉴트로 감성을 자아내는 커피숍과 관광명소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편의점의 경우, 과거에 판매했던 음료수의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해 판매를 재개하기도 했다.

뉴트로를 기업세태가 자신이 경험했던 문화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새로운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열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사회 전반의 빠른 시류변화로 세태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요즘, 뉴트로를 화합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 모리스 정 | 문화칼럼니스트

레트로의 변화사 : 제사와 종교 안에 묶여있었던 레트로, 현태에 들어 날개를 퍼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의 순간만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산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을 교차하며 혼돈과 질서를 반복한다. 레트로라는 이러한 혼돈과 질서의 간극에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 그 경험의 대상을 오늘날에 현재화시키는 노력은 세전에도 있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에 따르면 인간은 현재의 불안감과 우

울감, 죽음에의 공포, 신에 대한 외면감으로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소환하고 이것을 현재의 생활 방식 공동체 유지 기제가 바로 제사와 종교였다. 제사는 과거의 존재, 그 존재가 남긴 유산과 정서적 자취를 현재의 특별한 예식(ritual)의 방법으로 재소통(re-communicate)한다. 원시 부족 공동체의 제사보다 종교는 더욱 그러하다. 과거의 특별한 존재가 성신화한다. 성신화된 존재의 말은 경전이 되고, 그 경전은 후대인들의 삶의 맥락을 좌우한다. 경전에 담긴 과거의 신은 종교를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회상과 회합(회개)을 행하게 한다. 서구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 근대의 종말을 향한 철학적 투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적어도 이러한 움직임은 수천년간 계속되었다. 비단 서구유럽만이 아니다. 종교의 역사를 가진 모든 사회가 다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에 그 회상의 대상을 재경험해 왔다. 조상이 남긴 물건과 그림 뿐만 아니라 말과 글을 통해 선대의 과거를 회상했다. 크게 보면 옛것을 오늘에 되살려 호흡하자는 레트로의 정신과 맞닿는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개인들이 복고풍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옛것을 만주하지 않았다. 문화의 중심이 왕이나 귀족, 상층계급들에게 있었으므로 복고풍 마저도 그들의 인식 변화 탓이 컸다. 복고는 과거의 역사에 묻힌 오래된 물건과 이야기를 오늘에 되살린다. 복고의 주인공이자 향유 주체는 평범한 소비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레트로의 정신이다. 오늘날의 레트로를 제사, 종교적 행위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힘과 자격은 평범한 오늘을 사는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레트로가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혁명적 발전 속에서 지친 한국인들은 하이퍼리얼하게도 군사독재의 서슬퍼런 1980년대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절,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때를 추억했다. 초고속 통신망이 팔리고,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 파워가 키워졌음에도, 많은 대중들은 1980년대로부터 오로지 좋은 기억들만 소환해버려 즐거이 웃는다. 이렇게 레트로를 공식 경험의 집단적 총체가 아니라 비집단적 흐름의 총체다.

-정성신 연구원 | UCLA 인류학 박사후과정

1970s

국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생필품 광고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기로서 신문과 잡지에 나오는 떠다수의 선전과 광고는 비누, 치약, 강장제, 조미료 같은 일상적 제품을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시절, 광고는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에 대한 대중의 갈망을 담았다.

1970년대
광고



1980s

바야흐로, 컬러광고시대가 본격 개막한 시기! 군부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도 컸던 때였으나 사회의 한 축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이벤트가 열리면서 '빠른성장'과 '물질적풍요'가 넘쳐나던 때였다. 그러나 당시의 광고는 어두운 사회의 일면을 도외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980년대
광고



1990s

대한민국의 시장자본주의와 대중문화가 가히 폭발하던 시기로서 87년 6.29선언 이후 언론매체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신문, 방송매체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광고영역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였다.

1990년대
광고



2000s

통신기술과 인터넷, 네트워크가 광고시장을 장악한 시대다. 밀레니얼세대에게 접어드는 혁명적인 기술 전환기에 대중광고는 아이돌 가수, 탑모델을 내세운 휴대폰, 컴퓨터, PC통신 및 각종 인터넷 통신, 포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광고가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 대중 광고는 본격적으로 멀티 인터랙티브 광고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광고



달라진 오늘, 아직 그때로인 오늘

"2020년에는 정말 머리 위로 우주택시가 날아다닐 줄 알았지 뭐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1980), 백투더퓨처(1981) 같은 영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그야말로 SF영화들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왔었던 거든. 다들 기억하지? 애니메이션은 뭐 한 그렸을까? 1999년과 2000년의 세기말적인 모습이 외계행성 충돌이나 전지구적 자연재난, 핵전쟁 같은 엄청난 사건으로 지구멸망으로 비춰지기 일쑤였지. 하지만 2020년은 달랐다구. 2020년은 초기, 초미디엄 사회로 그려졌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관을 넘나드는 모습이나 화성은 물론 금성에 까지 인류가 진출하게 된 영화의 여러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 하지만 지금 어때? 아직은 아니잖아? 여전히 아날로그스러운 것도 많아. 여전히 우리는 벽돌과 시멘트로 된 도시환경에서 살고 있고, 빈잡한 교통환경은 여전히. 그리고 수십년 전에도 그랬을 아날로그적이고 목가적인 삶도 여전히. 영화적 상상력과 시간 예측력 사이에 큰 갭이 존재하는 것 같아. 불과 10년, 아니 수십년 후에는 엄청난 혁명적 전환과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영화적 상상력은 또 얼마나 대단해. 그 시점보다 더 먼 미래를 상상하게 되니까! 옛날 SF영화, 상상과학화를 떠올려보자. 2020년을 기대하고 상상했던 옛날 우리들이 어느정도까지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 말야.

어찌보면 다행이야.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천천히 나아가고 있어. 성급한 희망은 불안한 미래를 앞당기지만, 보존의 기억은 과거와 오늘을 다져주기 때문이지.

- 나지훈 | 서머문여관 전시프로그래머

2020 레트로플레이션의 산실, 서대문여관이 자리한... 이 곳은 새문안길 언덕의 돈의문박물관마을, 주변의 지리 키워드로 한국근현대사의 중심지를 이해해 봅니다. (편집자 주)



가로수 담장 따라 느끼는 역사의 숨결: 정동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많은 이야기거리와 함께 아픈 기억도 간직하고 있다. 근대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정동길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가 담긴 근대 골목이다. 아름다운 은행길은 텃밭이다. 정동길은 덕수궁 정문인 대한문에서 신문로까지 이어지는 이어지는 1.3 킬로미터의 길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의 묘인 정릉이 자리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 길은 자연과 역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다. 길따라 이어지는 은행나무는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곳곳을 수놓고, 이화여고, 정동교회 등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근대식 건축물들은 세월이 아랑곳 않고 그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다.

근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된 건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서대문과 서소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성벽이 보호막이 됐고, 자연스레 일제강점기 왕실과 양반 관료들의 주거 공간으로 발달했다. 특히 19세기 후반 서구열강의 공사관이 들어서며 서구식 교육기관과 종교건물이 집중됐다. 교육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시초격인 이화여고가 있고 창덕여중, 배재학당도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건물인 정동교회(정동제일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극장인 정동극장도 만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문을 닫은 독립신문 등의 언론도 이곳에 있었다. 아관파천의 쓸쓸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 공사관 터도 만날 수 있다.

역사적인 요소를 빼놓아도 많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리다 보니 정동길은 평일이든 휴일이든 사람들로 북적인다. 특히 평일 점심엔 백타이 부대들로 집결되는데, 많은 대기업과 언론사, 관공서들이 이 근처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정동길이 특히 빛을 발할 때는 날이 좋은 봄이나 가을이니, 혼자서든 둘이서든 좋다. 정동길을 걸으며 100년의 현대사에 수십 년, 나의 역사를 미추어 보자.

한성교회: 재한 화교신앙의 100년 역사를 간직한 터전



서울 정동길로 들어가는 골목 안쪽에 한성교회가 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교회가 있는지 알 수 없는데다가 표지판에 “여한중화기독교 한성교회(旅韓中華基督教 漢城教會)”라는 간판을 마주친다. 旅韓의 ‘旅’는 ‘나그네’란 뜻이니, 1912년에 설립하여 106년이 되었는데도 재한중국인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한국에 뿌리를 버리지 못한 여행객과 같은 신세라는 뜻일까? 재한중국인교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이너리티 이민자 교회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안 채로 매장하겠다는 아버지를 피하여 조선으로 도망친, 중국 산둥성 출신의 한의사 처마도신(차도삼)에게서 썩어 났다고 전해진다. 그는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데밍(C.S.Deming) 여선교사를 만났고, 두 사람이 1912년 YMCA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으로 교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6.25 한국전쟁으로 교회당은 파괴되고 화교 대부분이 서울을 떠났지만 맥클레인(Helen McClain) 선교사가 앞장서서 해외모금을 하여, 1958년 교회의 초석을 놓고 1960년에 예배당을 완공함으로써 오늘날의 한성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았다.

서울역사박물관(서울歷史博物館, Seoul Museum of History)은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울특별시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보여 주는 도시역사박물관으로, 주로 조선 중기 이후부터 20세기 말까지의 자료와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5월 21일 개관했다. 사라져가는 서울시 관내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을 통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한성백제와 조선왕조의 수도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온 서울의 지리와 인문, 역사에 중점을 둔 전시를 하고 있다.



경희궁: 구한말부터 최근까지 '북원의 길'은 아직 멀었는가?



대 궁궐 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많은 왕들이 경희궁에서 작지 않은 시간 동안 거처하면서 창덕궁이 지닌 정궁으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나눠서 수행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경복궁의 동쪽 궁궐인 창덕궁+창

1617년(광해군 9년)에 착공하여 1623년에 완공된 이 궁으로, 조선 후기 동안 정궁인 창덕궁에 이은 제2의 궁궐(이궁)로 양경궁을 지칭하는 '동궐'에 대비되는 경복궁의 서쪽 궁궐을 뜻하는 '서궐西闕'로 불리었다. 그리고 2013년 1월 27일 문화재청에서 2014년에 다시 복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며 복원작업에는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예산도 국비 70%, 시비 30%를 투입하며 2023년까지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제작한 종합정비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이후를 목표로 경희궁 전체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2016년 말에 경희궁 옆에 있었던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이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서울역사박물관의 주차장이 들어서고, 지금의 주차장 자리는 발굴을 통해 복원을 시도한다. 또한 방장호도 철거하고, 2025년까지 홍화문 등도 고쳐 짓는다.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등은 2026년부터 중장기계획에 따라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배수동 '옛 서울인들의 삶의 종류를 만나는 조용한 경희궁 뒷안길



배수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동이다. 행정동으로는 사직동에 속해 있으며, 동주민센터는 사직동주민센터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궁궐의 미곡(米穀)과 잡물, 노비 등의 수급을 담당하던 '배수사(內需司)'라는 관청이 있던 데에서 유래했다.

새문안로: 광화문으로 흐르는 서편 도심권의 안길

새문안로(新門內路, Saemunan-ro)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11에서 세종로 1-68를 잇는 왕복 8차선의 도로이다. 도로명은 '돈의문 안쪽'을 의미하는 '새문안'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궁궐의 미곡(米穀)과 잡물, 노비 등의 수급을 담당하던 '배수사(內需司)'라는 관청이 있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돈의문: '돈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은 아니올시다!



돈의문(敦義門)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4대문(大門) 중의 하나로 서쪽의 대문이다. 서대문(西大門)이라는 명칭이 있으나, 이는 근대에 와서야 붙인 이름이다.[주 1] '새문', '신문'(新門)이라고도 불렸으며, 인근의 새문안로(신문로)나 '새문안교회' 등의 이름은 여기서 따온 말이다. 돈의문은 한양도성의 축조와 함께 1396년에 건립되었다. 이름은 유학의 덕목인 인의예지신 중 의(義)를 넣어 만든 것이다. 1915년에 철거됐다.

이화: 근대, 신여성 배출의 요람!

이화(여고)는 1886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다. 1885년, 미국인 감리회 선교사 에리스 크랜튼 부인이 조선 땅을 밟았다. 당시 그녀는 52세의 과부였으며, 의사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함께 선교활동을 하러 조선에 왔다. 스크랜튼 부인은 조선 여성들이 너무나도 지위가 낮고 억압받으며 사는 것을 보고, 여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정동에 한옥 몇 채를 사들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들은 낯선 서양인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했고,[2] 이전에는 여자들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스크랜튼 부인은 아주 어렵고도 어렵게 여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 1명의 여학생으로 학교를 시작했을 정도.

이후로 버려진 여자아이, 도저히 부모가 기를 형편이 되지 않아 스크랜튼 부인에게 맡겨진 여자아이, 학교에서 일하는 고용인의 딸 등이 스크랜튼 부인의 학생이 되었으며, 차츰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전편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비회는 스크랜튼 부인의 학교에 배꽃이하는 뜻의 이화(梨花)라는 교명을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경향신문사 사옥: 건축가 김수근이 관세기를 바라보고 설계한 건축물



경향신문사 사옥의 역사는 잘 모르더라도 정동거리를 지나다보면 이 건물이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외관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 사옥은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건축가 김수근(1931~1986)에 의해 설계돼 그의 건축미학인 '기념적 조형'이 잘 드러나는 서울의 중요 근대적 건축물이다. 1967년 준공 당시 이 건물은 방송국과 호텔이 결합되어 건설됐다. 당시 방송국은 바로 문화방송(MBC)이었는데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72년 경향신문과 통합됐다. 그러다가 또다시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신문과 방송이 분리됨과 동시에 MBC가 여의도로 이전하면서 경향신문사 사옥이 됐다.

도움말: 남근우 대표

(돈의문박물관마을 갤러리 카페 서궁 대표)
Playretro@서대문여관팀은 카페 서궁을 중심으로 7080 서울오리지널리티들 그룹과 함께 정동, 배수동 등 광화문 일대의 레트로 빌딩지를 걷는 서울의 레트로워킹 프로그램을 준비중입니다.

요사이 뉴트로 플레이란 이런 것! 인터넷 짤방 합성 크리에이터들이 땀길 다해!

최근 몇 년 동안 복고풍 디자인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들이 꽤나 두드러졌다. 레트로콘텐츠에 폭 빠진 이른바 레트로빠 디자이너들에 따르면 옛날 그림이나 광고물, 간판을 가져다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다. 요즘 광고물을 촌티가 작렬하게! 흑백필름, 구식필 중만한 자세로 뉴모던, 뉴갬성 들우는 새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지극히 자발적인 디자인 혁신 아니겠는가?



서울 종로, 강남, 홍대, 신사, 가로수길을 걸어보았소. 한눈엔 촌티, 두 세번 거듭보니 불수록 친근! 레트로 간판 계속 늘어나!

tvN 드라마 <응답하라>시리즈 탓일까? 배달의민족 '배민체' 덕일까? 지겹하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어여쁘신 뜻을 요즘 젊은이들이 깊이 깨달은 것일까?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도시의 곳곳마다 이런 탑골스러운 레트로 간판 풍경을 많이 보게 돼. 천연필름적인 프랜차이즈 간판, 고색창연한 공굴리시 간판보다 이런 간판들이 새로운 K-SIGN의 흐름을 이어갔으면 싶다.

- 글.사진 나지훈 프로그래머(서머운여관)



여긴 여관이었고 지금도 여관이요 요새 젊은 것들은 호테루나 모테루만 아는 것이 통상례라 하잖소.

공상과학만 <2020 원더키디>의 우주선 날아다닐 2020년에도 여인숙과 여관은 있다. 번지르르하고 창연하기 이룰데 없는 도회지 큰길과 유흥가마다 없는게 없는 것이 나그네 잠자고 머무를 곳 아니요. 하지만 이곳 서머운여관은 다르다.1925년 일제시대부터 2005년 까지 운영되어온 나그네 건물이 2018년부터 복고풍 전시관으로 바뀌지 않았었는가. 마침내 경탄스러운 오랜 세월을 지나 신생한 요즘말로 레트로 전문 전시관으로 탈바꿈을 하였다. 자 다들 잠시 쉬었다, 머물다 가시오. 매달마다 색다른 주제와 양식으로 전국각지의 사람들을 맞이할테니.



레트로전시 전문 서머운여관 작가大모집

- ◎ 7080세대와 공감가능한 청년작가
 - ◎ '뉴트로'콘텐츠를만들 요량이 있는 자
 - ◎ 현직 캘리그라피스트, 디자이너, 팝아티스트 우대
- www.playretro.kr / 070.8100.9037
- 레트로플레이@서머운여관

기업의 역사와 광고를 리브랜딩해드립니다

웬 여관에서 광고를 하나? 이말이요?
서머운여관은 즐거운 레트로플레이 공간이올시다.
사계절 변함없이 다채로운
레트로 주제로 전시,광고를 하니
하榻다는 뜻 가진 기업들을 연락주시오.

www.playretro.kr / 070.8100.9037

레트로플레이@서머운여관

마을전시관 Village Exhibit Hall

- | | |
|---|------------------------------------|
| 12-16 돈의문전시관 / Donuimun Museum | 27 새문안극장 / Saemunan Theater |
| 18 독립운동가의 집 / Hall of Independence Fighters | 28 돈의문컴퓨터게임장 / Donuimun Game Room |
| 19 스코필드 기념관 / F. W. Schofield Memorial | 새문안안화방 / Saemunan Comic Book Store |
| 22 돈의문구락부 / Donuimun Gurakbu | 29 서대문사진관 / Seodaemun Photo Studio |
| 24 시민갤러리 / Art Gallery in Seoul | 30 삼거리이용원 / Samgeori Barbershop |
| 25 서울미래유산관 / Hall of Seoul Future Heritage | 32 작가갤러리 / Artists' Gallery |
| 26 생활사전시관 / Hall of Life History | |

체험교육관 Experience Education Center

- | | |
|---------------------------|-----------------------------|
| 1 한지공예 / Hanji Crafts | 8 자수공예 / Embroidery Art |
| 2 서예 / Calligraphy | 9 닥종이공방 / Dakpaper Workshop |
| 5 꽃공방 / Flower workshop | 10 미술체험 / Arts and Crafts |
| 6 음악예술 / Music Art | 11 도예공방 / Pottery Workshop |
| 7 명인갤러리 / Masters Gallery | |

기타시설 Other Facilities

- | | |
|---|----------------------------------|
| 17 돈의문상회 / Donuimun Shop | 40 마을안내소 / Information Center |
| 39 서울도시건축센터 / Seoul Center for Architecture & Urbanism | 17 23 31 방문객휴게소 / Visitor Lounge |
| 39 -5F 돈의문체험관 / 5F Donuimun Gate Experience Center | |
| 39 -B1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 / B1 Seoul Urban Regeneration Gallery | |

마을창작소 Village Workshop

- | |
|--|
| 3 돈의문학당 / 박명란 / Donuimun Hakdang (Village School) / Park Myeong-ran |
| 4 생활예술 레지던시 '비온드라이프' / 청춘여가연구소 / Community Arts Residency Beyond Life / Cheongchun Lab |
| 20 돈의문 레트로 전파인(Inn) / 아름다운다락방 / Donuimun Retro Wave Inn / Beautiful Attic, MIRU |
| 21 아무개씨의 박물관 / 그리GO / The Anonymous Museum / GRIGO |
| 33 아해로 골목놀이 / (후)헤리티지프로젝트 / Ahearo - a Play Space for Korean Games / Heritage Project |
| 34 프로젝트 터 / 내내로(NNR, 앤앤알) / Project 'Teo(Site)' / Ne-Ne-Ro(NNR) |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 돈의문박물관마을



2020.03 특별판 | 발행 : (사)아름다운다락방 발행인 : 허정기, 기획/구성 : Retroplay@서머운여관 | 협력기관 : 지스토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41-3 서머운여관빌딩 (돈의문박물관마을) 문의 : 070.8100.9037 / www.playretro.kr